

케이팝 그룹 '4세대 시대' 활짝 열었다

4연속 빌보드 메인 차트 진입
국내서도 선주문 220만장 돌파
해외 팬덤 등 확고한 영역 확보
BTS 등 3세대 뒤이을 후발주자



그룹 NCT 127이 17일 미국 CBS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쇼 위드 제임스 코든'에서 선보인 '스티커' 무대 모습.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그룹 NCT 127이 '케이팝(K) 4세대'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 새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올해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27일(한국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NCT 127이 최근 발표한 정규 3집 '스티커'(Sticker)로 메인 앨범 최신 차트(11월 2일자) '빌보드 200'에서 3위를 차지했다. 이들이 '빌보드 200'에서 3위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 특히 케이팝 가수가 해당 차트에서 3위권에 진입한 것으로는 그룹 방탄소년단과 슈퍼엠, 블랙핑크에 이어 네 번째이다.

NCT 127은 2018년 정규 1집 'NCT #127 레플라-이레플라'로 '빌보드 200' 차트에 86위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이듬해 네 번째 미니앨범 'NCT #127 위아 슈퍼휴먼'으로 1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규 2집 'NCT #127 네오 존'으로는 5위의 성적으로 상승세를 그려왔다.

이날 빌보드가 인용한 MRC 데이터에 따르면 '스티커'는 총 6만2000장 상당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이 가운데 앨범 판매량이 5만8000장으로 대부

분을 차지한다. 빌보드는 "스트리밍 수치(SEA)는 3000장, 다운로드 수치(TEA)는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NCT 127은 앞서 앨범 '스티커'로 일찌감치 흥행 돌풍을 예고했다. 국내에서 발매 일주일만에 선 주문량 220만장을 돌파하며 더블 밀리언셀러를 예고했다. 여기에 글로벌 차트 성적까지 끌어올린 이들은 빌보드와 함께 세계 팝음악의 양대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차트 톱100에도

40위로 진입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NCT 127은 2016년 멤버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데뷔한 아이돌 그룹 NCT의 유닛이다. 북미권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들은 케이팝 본거지인 서울을 기반으로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겠다는 출사표를 내고 실제 미국시장에서 크게 활약해왔다. 이 같은 해외 성과로 케이팝의 글로벌 인기를 이어갈 4세대 그룹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이들을 비롯해 스트레이 키즈, 더보이즈, 에이티즈 등 가요계에 등장한 지 3~4년 된 기성그룹부터 갓 데뷔한 신인그룹을 4세대라 일컫는다. 하지만 이제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엑소 등 2013년 데뷔한 3세대 글로벌 그룹을 잇는 후발주자로서 압도적인 앨범 판매량과 해외 팬덤 등 케이팝의 새로운 주도권을 쥐게 된 '톱 아이돌'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정혜 기자 annjoy@donga.com

백종원, 토크쇼 진행 새로운 도전

넷플릭스 새 예능 '백스피릿' MC 변신
유명인들과 술잔 기울이며 인생 토크
좋은 전통주와 어울리는 안주도 소개

방송가 '히트메이커'인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색다른 도전을 펼친다. 10월1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로 공개하는 예능 콘텐츠 '백스피릿'을 통해 처음으로 토크쇼를 진행한다. 배우 김희애·한지민·이준기, 가수 박재범·로꼬, 나영석 PD, 배우스타 김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들과 술잔을 나누며 그들의 숨겨진 인생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 "토크쇼 진행자? '술의 힘' 빌려서"
백종원은 27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처음에는 토크쇼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했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토크쇼가 됐다"면서 "적당히 마시면 솔직하게 속내를 터놓을 수 있게 하는 '술의 힘'으로 진행자 역할을 무사히 해냈다"며 웃었다.

제작진은 친근하고 편안한 술자리를 담아내기 위해 "백종원과 친분이 있거나 그가 '팬심'을 지닌 유명 인사들"을 게스트로 섭외했다. 연출자 박희연 PD는 "시청자가 '나도 저 자리에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면서 "그러려면 출연자들이 술자리를 있는 그대로 즐기는 모습을 담아야 했다. 촬영현장에서는 카메라도 모두 안 보이는 곳에 배치해 출연자들이 촬영 중이란 사실을 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백종원은 "촬영 말미에는 항상 '스피릿'



백종원(왼쪽)이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넷플릭스 예능 콘텐츠 '백스피릿'으로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사진은 백 대표가 로꼬와 박재범, 강석원(왼쪽)과 전무(왼쪽부터)와 함께 술잔을 나누는 '백스피릿' 한 장면. 사진제공 | 넷플릭스

(영혼)이 나갈 정도로 분위기에 흠뻑 취했다"면서 "우리나라 특유의 정 넘치는 술자리 문화가 잘 담길 것 같다"고 자신했다. 김희애, 이준기, 김연경 등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편안한 분위기로 촬영을 잘 했다. 해외 시청자들이 '한국 놀러 가면 저 술을 마셔봐야지' 생각하게 하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제는 주량 말고 주종 물어보라"

백종원이 술을 소재로 내세우는 건 처음이다. 전국의 숨겨진 전통주와 어울리는 안주를 직접 선정해 소개한다. 백종원은 "전통주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생각으로 자료를 무수히 찾아보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열심히 공부했다"고 밝혔다.

음주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한 음주문화를 알리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금씩 맛보면서 잘 맞는 음식과 술을 마시는 것을 권한다"면서 "주량보다 브랜드와 도수, 재료 등을 포함한 주종을 묻는 문화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콘텐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190여개 국가 지역 시청자들이 '백스피릿'을 보고 한국의 숨겨진 내공, '케이(K) 스피릿'을 느껴주셨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n0304@donga.com

'기후 행동' 팬덤이 나선다

BTS 지구지킴이에 아미도 동참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이 참여하는
'기후 행동 플랫폼' 캠페인 벌여

그룹 방탄소년단이 26일 오전 '2021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Global Citizen LIV E)' 콘서트의 막을 열었다. 빈곤 퇴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공유 등 메시지를 담은 6개국 주요 도시에서 펼친 무대에는 세계적인 스타들이 대거 참여해 기후변화 위기 관련 내용도 담았다.

이에 앞서 방탄소년단은 21일 제7차 유엔총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멘트'에서 연설하며 친환경 원단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슈트를 입어 화제를 모았다. 의류 등 버려지는 제품을 재가공해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며 친환경의 의미를 표현했다.

그룹 블랙핑크는 지난해 12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후변화는 범지구적 과제이다. 우리 모두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이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들은 빈곤·기아 종식 등 국제사회가 새로운 개발 목표로 내세운 17개 항목 가운데 하나인 기후변화 위기를 주요 의제 삼은 'SDG 모멘트'와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홍보대사로서도 활약하고 있다.

이처럼 케이(K)팝 스타들은 그동안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며 새로운 '행동'을 요구해왔다. 팬들도 이에 화답하고 있다. 이미 스타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고, 스타의 생일을 축하하며 기후변화 위기를 알리는 메시지를 광고에 담은 팬들은 최근 방탄소년단의 앨범 표지에 등장한 강원도 삼척시 맹방해변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에도 나섰다. 인근에



케이팝 팬들이 방탄소년단의 '버터' 앨범 표지에 등장한 강원도 삼척시 맹방해변을 지키기 위한 '세이브 버터 비치(SaveButterBeach)' 서명 캠페인(위)을 벌이고 있다. 블랙핑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홍보대사로서 나섰다. (아래)

사진제공 | 케이팝플래닛·YG엔터테인먼트

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어서 이로 인한 해일 침식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세이브 버터 비치(SaveButterBeach)'

란 이름의 서명 캠페인이다.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이 참여하는 기후 행동 플랫폼 '케이팝플래닛(Kpop4planet)'과 전국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는 기후행동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넣고 있다. 케이팝플래닛이 6월 세계 케이팝 팬 36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팬 10명 가운데 9명이 관련 인식에 동의했다. 이들은 변화를 이끌기 위한 기후행동의 중요 주제로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꼽았다. 이에 "죽은 지구에 케이팝은 없다(No K-pop on a Dead Planet)"는 캠페인에 SM·YG·JYP·하이브 등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사가 동참하길 요청하고 있다.

케이팝플래닛 플랫폼의 운영자인 인도네시아의 누를 사리파는 "나와 또래들이 케이팝을 즐기는 마지막 세대가 되길 원치 않는다"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전 세계 케이팝 팬들과 아이돌, 스타, 엔터테인먼트사를 모아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개그우먼 황신영, 세 쌍둥이 출산 화제



황신영

27일 연예계에 경사가 이어졌다. 개그우먼 황신영이 이날 세 쌍둥이를 낳아 화제다. 그는 SNS에 갓 태어난 아기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응급상황으로 니큐(신생아중환자실)가 부족해 삼둥이 중 두 명은 다른 병영으로 가 현재 출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삼둥이 아기들 다 건강히 잘 태어났고, 저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결혼한 그는 인공수정으로 세 쌍둥이를 가졌다. 8월 결혼 소식을 알린 그룹 아이콘의 바비도 아들을 얻었다. 그는 지난달 결혼과 함께 "9월에 아버지가 된다"고 알렸다. 그룹 빅뱅 출신 태양과 2018년 결혼한 연기자 민효린도 이날 결혼 3년 만에 임신한 소식을 전하며 출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엄정화·조진웅 등 '액터스 하우스' 참여



엄정화

조진웅

배우 엄정화, 조진웅, 한예리, 이재훈 등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신실하는 토크프로그램 '액터스 하우스'에 나선다. 27일 부산국제영화제는 "동시대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생각, 각자의 연기 명장면 등에 관해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는 '액터스 하우스'를 선보인다"면서 참여 배우 명단을 밝혔다. 올해 영화제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엄정화와 조진웅을 비롯해 영화 '미나리'로 세계적 관심을 받은 한예리, 영화 '풀'로 호평받은 전종서, 단편 올림버스 프로젝트 '엔프레임드' 감독으로 나선 이재훈, 최근 '자산어보'와 '보이스' 등을 내놓은 변요한이 참여한다.

음주운전·경찰 폭행 래퍼 노엘, 곧 경찰 소환



노엘(장윤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장윤준)이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곧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27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노엘에 대해 "피의자 조사만 남았다"면서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 판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엘은 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와 부딪힌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뮤지컬 배우 정선아 10월 10일 웨딩마치



정선아

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10월10일 결혼한다. 27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정선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맞게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이날 조촐히 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아는 지난해 4월 1년 동안 교제한 한 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을 미뤘다 10월 예식을 올리게 됐다. 정선아는 2002년 뮤지컬 '렌트'로 데뷔해 '에비타' '위키드' '아이디' 등 다양한 뮤지컬 무대에 오른 대표적 스타이다.

EBS, 7년만에 청소년 드라마 '하트...' 선배

EBS가 7년 만에 청소년 드라마를 선보인다. 27일 EBS는 "청소년 드라마 '하트가 빛나는 순간'을 28일부터 방영한다"고 밝혔다. '하트가 빛나는 순간'은 열일곱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진짜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연기자 최지수, 오재용, 정수빈, 신소현이 주연으로 나선다. 연출자 손예인 PD는 이날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10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여주는 드라마"라면서 "청소년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